



품관소, 민군 규격 통일화사업 종합발표회 개최

군 요구성능 완화하고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...



'98년 4월에 제정된 민군겸용기술촉진법에 의거 추진중인 '민군겸용기술사업'의 일환인 '민군규격통일화사업'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품관소는 '97년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산하의 군사규격개선반 활동으로부터 국방규격/표준의 개혁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.

이 날 발표회에서는 '99년에 확정된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'00년도에 추진한 국방규격의 정비 및 연구과제별 수행 실적을 평가/발표하였으며 향후의 국방규격 개혁 방향 및 마스터플랜을

국방 품질관리소는 6월 22일 『'00년도 민군규격통일화사업 종합평가 및 발표회』를 국방부, 과학기술부,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 및 관련 연구기관과 민간 규격 및 표준단체의 전문가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.

이원형 품관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"민군규격통일화사업은 군의 과도한 요구사항을 심층 검토, 완화하여 KS로 전환하거나 활용되지 않는 국방규격을 폐지함으로써 상용품 채택 확대 및 규격의 관리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"고 강조했다.

최근 국제 환경은 냉전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경제적, 첨단 과학기술력을 중점으로 한 국가총력체제로의 전환 및 세계가 하나의 표준으로 통용하여 시장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쟁무역시대에 돌입하였고, 국내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표준체계가 미정립되어 부처별 별개 추진 및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잔존해 있는 현실에서 민군규격통일화사업의 추진은 필연적이라 할 수 밖에 없다.

제시하였다.

평가 및 발표과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계요소류 규격통일,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부자재류 규격통일, 한국기계연구원의 수공구류 규격통일과 함정탑재장비류 규격통일, 전자부품연구원의 통전장비류 환경시험조건분석 및 규격통일, 한국국방연구원의 비무기체계 표준품목 상용전환,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원자재류 규격통일, 품관소의 국내·외 규격조사분석(물류표준화 및 민수규격과의 통일 포함) 등 8개 과제이다.

연구과제별 도출된 결과는 국방규격을 KS규격으로 전환 및 통합을 통하여 민군겸용기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, 상용품 채택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방예산의 절감과 국가표준체계의 조기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날의 평가 및 발표회를 계기로 국방부는 물론이고, 정부 각 부처와의 공조체제 형성으로 국가표준체계의 확립에 기여하고 세계 표준화시대의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.